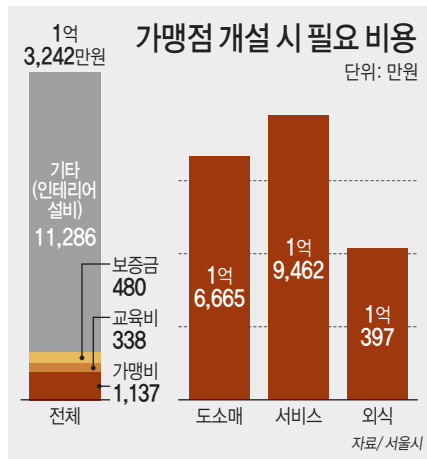


# 프랜차이즈 브랜드, 3년내 20% 폐업

## 서울시 2019 프랜차이즈 분석

평균 창업비용 1억 3242만원  
외식업, 3년차 생존율 평균이하  
더본코리아, 브랜드·가맹점 수 1위



서울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20% 이상이 3년 이내에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8일 가맹사업정보공개서 등록현황을 활용한 '2019년 서울의 프랜차이즈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작년 말 기준 서울 지역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1900개, 브랜드는 2467개로 집계됐다. 이는 각각 전국 등록 건수의 36.7%와 38.8%에 해당한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크게 가맹본부와 브랜드, 가맹점으로 나뉘며 가맹본부가 브랜드를 가지고 가맹점을 내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SPC그룹은 가맹본부가 된다. SPC그룹이 소유한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가 브랜드고, 이를 이용해 영

업을 하는 가게는 가맹점이다.

서울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생존율은 1년차 93.4%, 2년차 82.0%, 3년차 79.4%였다. 3년 이내에 없어지는 브랜드가 20% 이상이라는 의미다.

업종별 3년차 생존율을 보면 도소매업은 91.3%로 높았지만 서비스업은 82.2%로 낮았다. 외식업은 77.7%에 불과했다.

가맹점 평균 창업 비용은 1억3242만원으로 조사됐다. 창업 비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인테리어, 설비비용과 같은 기타 비용으로 1억 1286만원에 달했다. 이밖에 가맹비는

1137만원, 보증금은 480만원, 교육비는 338만원이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창업비용이 1억946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업 1억6665만원, 외식업 1억397만원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에 등록된 브랜드 2467개 가운데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비율은 약 10%인 246개에 불과했고,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브랜드가 전체의 58.5%인 1442개였다. 특히 외식업종 브랜드는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가 63.4%였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등록 가맹본부 중에서는 더본코리아가 22개 브랜드에 가맹점 1341개를 보유해 브랜드 수와 가맹점 수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이번 '프랜차이즈 분석'을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내 프랜차이즈 산업 분포 및 통계, 세부 항목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산업동향을 파악하고 발표하겠다"며 "믿을 수 있는 데이터는 예비 프랜차이즈 창업자들이 새로운 도전과 인생을 시작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관광공, 내달 29일까지 부산여행 캠페인

침체된 관광시장 활성화  
기획상품 할인판매·혜택

한국관광공사는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관광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달 29일까지 부산 여행 캠페인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공사는 이날 정오부터 국내 여행·액티비티 플랫폼 '프립'을 통해 부산 관광 기획전 20개 상품을 선착순 1000명에게 5000원 할인해 판매한다. 또 별도 이벤트인 '힘내라 부산'을 통해 선착순 100명에게 5000원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획전 상품은 구매 후 최대 3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기획전의 슬로건은 '부산에서 즐기는 특별한 액티비티'로, ▲서핑체험 ▲요트체험 ▲한국을 입다 - 생활한복 입고 미션수행 체험 ▲송도해수욕장 수상자전거·제트보트 패키지 ▲부산 원도심 투어&디지털 드로잉 ▲해양생태체험스쿠버다이빙 ▲부산이 담긴 나만의 머그잔(토퍼) 만들기 체험 ▲부산의 베네치아 장립포구 드론 인샷 등 공사에서 선정한 관광 벤처기



부산 여행 캠페인 배너. /한국관광공사

업 및 2019년 부산 관광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상품으로 구성됐다.

오는 20일 낮 12시 15분부터 약 한 시간 동안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인 '잼라이브'를 통해 상품 특가 판매와 부산여행 관련 실시간 질의응답을 포함한 부산 관광 기획전 방송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과 프립, 잼라이브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유미 한국관광공사 부산울산지사는 "이번 기획전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부산 관광 기업들과 협력해 준비했다"며 "관광기업들과 안전여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동부간선도로에 태양광 방음터널 설치

연간 300여 가구 사용가능 전력  
주변지역 소음 차단 방음 기능도



동부간선도로에 설치된 태양광 방음터널. /서울시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노원구 상계8동~의정부 시계 479m 구간에 5472㎡ 규모의 '태양광 방음터널'을 설치해 연간 3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83만kWh 전력을 생산한다고 18일 밝혔다.

태양광 방음터널은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생산한다. 주변지역의 도로 소음을 차단하는 방음 기능도 갖췄다. 시는 방음 성능이 있는 태양광 패널 총 2736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총 902.8kW 규모다. 연간 약 367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 13만2120그루의 나무를 심은 것

과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방음유리 자체비로 13억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서울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20년 동안 총 4억4000만원의 부지임대료를 받게 된다.

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발전사업자

다스코가 태양광 패널 설치비용을 투자하고 20년간 총 18억원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비를 회수한다.

시는 20년 뒤 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직접 운영하면 연간 3200만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 내 성인 흡연율 1.9p% 감소

남성 흡연율 3.5%p ↓

최근 1년간 서울시 성인 흡연율과 남성 흡연율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공중과 프로그램으로 금연 과정, 금연송을 홍보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서울형 비대면 금연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역사회건강 조사에서 서울시 19세 이상 성인 흡연율은 2018년 18.6%에서 지난해 16.7%로 1.9%포인트 줄었다. 특히 서울시 남성 흡연율은 2018년 34.4%에서 지난해 30.9%로 3.5%포인트 감소했다.

시는 현재의 흡연율 감소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대시민 금연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청물과 화제성이 높은 MBC '나혼자 산다' 프로그램과 연

계해 출연자가 금연을 시도하고 유지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시는 금연송을 제작·확산해 흡연자들이 의지를 다지고 금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보건소 중심의 청소년 금연서비스를 지역사회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체험형 금연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 등 자치구별로 다양한 금연서비스 제공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 통일된 '서울형 비대면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흡연자를 위해 비대면 금연서비스를 개발·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마포구에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연다

서울시 교육·돌봄지원, 11월 개소

서울시는 오는 11월 성인 뇌병변장애인에게 교육, 돌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를 개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센터는 마포구 신촌로26길 10 소재 복지관 2층에 마련되며, 8월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뇌병변장애인은 뇌졸중, 뇌손상, 뇌성마비 등 뇌의 기질적 손상에 따른 장애가 생긴 사람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은 학령기를 지나 성인이 되면 집 외에 마땅히 머무르거나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센터는 이들에게 은행 업무 보기나 장보기와 같은 사회 적응훈련과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직업능력향상 교육, 생애주기별 특별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매년 센터를 2곳씩 늘려 2023년까지 총 8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센터는 장애인 당사자 자립 강화와 가족의 돌봄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車 수리 시 순정부품 고집할 필요 없어"

서울시 품질인증부품·순정부품 비교  
6개 항목서 '거의 차이 없음' 결과

서울시는 자동차를 수리할 때 꼭 순정부품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18일 내놨다.

시는 국내 중소기업이 만들고 국토교통부가 품질을 인증한 '품질인증부품'과 순정부품이라 불리는 OEM 부품을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비교 시험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시는 현대자동차 산타페TM의 펜더(바퀴 덮개), 그랜저IG의 펜더, BMW

520D의 범퍼를 대상으로 품질인증부품과 OEM 부품을 시험했다.

육안검사, 부품 두께, 코팅 두께, 인장강도, 내부식성, 단차 간극 등 6개 항목을 비교했다. 육안검사와 부품 두께에서 세 차종 모두 품질인증부품과 OEM 부품을 '거의 차이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코팅 두께는 모두 '품질인증부품이 OEM 부품과 허용 범위 이내 차이'로 나타났다. 내부식성은 '이상 없음', 단차 간극은 '기준범위 이내'였다. 인장강도는 세 차종 모두 '품질인증부품이 OEM

부품보다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품질인증부품은 통상 OEM 부품보다 저렴하고 수리 보험금 환급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쓰여온 '순정부품', '비순정부품'이라는 용어가 순정부품만 품질이 우수하다는 편견을 만드는 원인의 하나로 보고 용어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수리비를 환급해주는 보험사의 '소비자환급 특별약관'을 가입자를 대상으로 안내하고, 한국자동차부품협회 등과 협력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